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4년 12월 15일

제 16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손석기 전 SBS 아나운서실장 방통심위 방송언어특위 위원장 선임

김형주(전 MBC) 방송언어특위 위원, 고성균(전 KBS) 통신특위 위원



손석기 김형주 고성균

손석기(전 SBS)회원이 제7기 방송언어특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10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에서 열린 1년 임기의 특위 위원 위촉식에서 방송언어특위 김형주(전 MBC) 위원이 연임되었고 통신특위(위원장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에 고성균(전 KBS) 위원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손석기 위원장은 1976년 동아방송(DBS)에 입사, 1980년 방송통폐합으로 KBS에 몸담다 1991년 SBS로 이직해 아나운서실장을 지내고 2010년 퇴직했다.

김형주 위원은 1975년 광주MBC에 입사, 편성국장과 보도국장을 거쳐 2008년 광주 영어방송 초대 방송본부장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광주대 항공서비스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과 외래교수인 고성균 위원은 1973년 KBS 공채 1기로 입사, 원주방송국장, 라디오제작본부장을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홍보 특별좌관과 복지TV 고문을 역임했다

그 동안 (사) 한국아나운서클럽에서는 차인태(전 MBC) 부회장을 비롯해 KBS 박태남 아나운서, MBC 강영은 아나운서, SBS 유협 아나운서, 유정아(전 KBS), 성경환(전 MBC), 김상준(전 KBS), 김지문(전 KBS), SBS 손범규 아나운서(임명 순) 등이 방송언어특위에서 방송언어 순화와 개선방안 모색,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정은임 아나운서 10주기 맞아 <영화음악> 팬클럽이 추모행사 열어



▶정은임 추모 '기억의 숲' 행사에서 노래하는 가수 모리슨호텔 (사진 제공 : 관객 김선희)

고故 정은임(전 MBC) 아나운서의 팬들이 10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8월 3일 '아름다운 가게' 서울역점에서 개최한 바자회에 이어, 10월 19일 (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구로구 향동 푸른수목원 잔디마당에서 <정은임의 FM영화음악(이하 정영음)>이란

주제로 펼쳐진 '구로더불어숲축제' 셋째 날 '기억의 숲' 행사가 그것이다.

정은임 아나운서는 1968년 10월 13일생으로 1992년 입사, 그 해 11월부터 1995년 4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정영음>을 진행하며 '세밀하게 영화와 인생을 들여다보며 청춘의 감수성을 짚고 시대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DJ'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7월 손수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후석동 삼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전복사고를 당해 8월 4일 향년 3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안타까워한 <정영음> 애청자들은 1주기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정은임추모사업회(<http://www.worldost.com>)를 만들어, '정든님'을 영원히 간직하고 잊기 않기 위해 해마다 '아름다운 하루'라는 추모 바자회를 열며 소외아동을 돕고 있다.

송/년/사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딴습니까?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김동건 (전 KBS) 회장

끝없이 닦고 시청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다. 그렇지 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남 보기에 쉬워 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방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쉽게 한다!' 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신인 시절 밤낮으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하는데도 선배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들을 때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남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줄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숙련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해심, 인정, 의리, 신의가 있어 시청자 앞에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어야 믿음을 줄 수 있다.

'아나운서는 무엇보다 방송 잘하고 선후배 잘 챙기고, 또한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지금도 방송을 하고 나면 후회한다. 갈 길이 멀 수밖에...

원하던 아나운서가 되어 50년 넘도록 방송하며 지내는 난 그만큼 세상에 갇을 게 많다. 한 해의 막바지에서 혹시라도 나누지 못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은 없었는지 돌아켜본다. 선후배 회원 여러분께 널리 헤랑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아나운서연합회 '소통' 주제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신동진)가 주최하는 아나운서 역량 강화 세미나가 '소통의 시대, 아나운서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각 방송사 아나운서와 방송계 인사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초빙강사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은 '대형 사건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본

언론인의 보도자세'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아나운서가 적극적으로 제작 및 취재 활동에 참여해 주도적인 방송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아나운서의 보도 윤리에 대한 접근법과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15년 정기총회 3월 4일 (수) 오후 6시 30분 열빈 많은 참석 바랍니다.

SILVER JEWELRY STORE

HANDCRAFT 92.5% STERLING SILVER
CUSTOM ORDER AVAILABLE
FOLLOW @ QUANTEZ22
+82025158233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19 (신사동 543-11) 은암빌딩 1층 Tel.: 02) 515-8233 www.quantez.com Designer/대표 김범수

2014 대한민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



장기범상 (우리말 바른말) 제작진행 평화방송(PBC) 아나운서팀



라디오진행상 최지은(tbs)



라디오진행상 정희경(부산CBS)



TV진행상 김일중(SBS)



스포츠캐스터상 허일후(MBC)



지역상 조미숙(대구ebc)



지역상 이경수(KBS 광주)



특별상 MBC 아나운서들(김범도 대표수상)

2014 한국아나운서대상 화제의 수상자 인터뷰

김재원(KBS)

답백하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정평



미국 유학 중 부친의 외병 소식에 귀국해, 병실에서 간병하며 KBS 공채 21기 입사시험을 치렀다는 김재원 아나운서.

1995년 12월 10일이 카메라테스트를 받았던 날이라며 그 날 제시된 뉴스를 줄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

KBS 1TV (아침마당)를 비롯해 <TV는 사랑을 싣고>, <사랑의 리퀘스트>, <6시 내고향>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담백하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일찍이 정평이 났지만 상복은 없었던 그는 "아나운서답다"는 수식어로 버텼다. 과잉 영양 공급해주는 것 잘 알아가며 모든 풍파 헤치고 아나운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걸어서 마포구 용강동 집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출근한다는 그는 2013년 <마음 말하기 연습(무르메)>을 출간했다.

현재 서울신문 '문화마당'에 칼럼과 아나운서저널에 '나의 아나운서기'를 기고하며 '아나운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강의 등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2005년 휴직,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로 유학 가 3년간 언어정책학을 연구한 학파로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혜승(SBS)

선배를 귀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2000년 SBS 입사 이래 (모닝와이드)와 <주말 8뉴스> 앵커, <진기록 팽평평>, <접속무비월드>, <TV영어마을>, <컬처클럽>, <아테네 올림픽> MC, (모닝 익스프레스) DJ 등 다채로운 방송활동을 해왔다.

입사 초에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후 귀감이 되는 많은 선배님들을 보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곳곳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선배들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었다는 이혜승 아나운서는 "처음 받는 상이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더 의미 있고 깊다. 작은 방송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격려하는 귀한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국제회의통역반을 수료했다. 외국어공부와 요리가 취미로 작년부터 시작한 달리기가 슬럼프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시켜주는 건 뭐든 열심히 하겠다며, 아이엄마가 되어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호(OBS)

프로 이야기꾼이 되는 게 꿈, 스피치에 남다른 관심



"11년간 꾸준히 방송해온 개근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11년은 좋은 방송으로 평가받겠다."라고 소감을 밝힌 김준호 아나운서는 균형각각을 갖춘 방송진행 능력과 겸손하고 배려 깊은 품성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논문 '스피치를 통한 자기제시가 화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학내 2012 상반기 우수논문상을 받았을 정도로 '프로 이야기꾼이 되자'라는 방송철학에 걸맞게 스토리텔링과 스피치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취미와 특기가 운동, 노래, 아쿠아 스캐핑(수족관 조경)이라는 그는 '합창단 상투스'의 테너 겸 총무, 극단 '디오니소스'의 (취뿔) 음악감독과 극단 '변주'의 배우로 뮤지컬 <X라는 아이에 대한 임상학적 보고서>에 출연한 적이 있는 재주꾼이다.

2004년 한국경제TV를 거쳐 2009년 OBS에 입사, 4년 넘게 OBS협회의 우리말 게시 총괄 담당으로 일하며, 현재 <뉴스 & 이슈>, <별난 영화감별위원회>, <2014 K리그 클래식>을 맡아 다재다능하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나운서이다.

이규향(전 KBS)

올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 전파에 심혈 기울여



아들 이상협 (KBS) 아나운서까지, 온가족의 축하 속에 외손녀딸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이규향 회원은 "아나운서는 선택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러나 잘 못 하면 천직天職이 천직天職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1961년부터 1997년까지 재직하며 정확하고 유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야구·유도 전문 캐스터로서 민속씨름을 태동시키고 제2대 KBS한국어연구회장을 지낸 그는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작업 당시 조절 검토위원, 외래어 심의위원,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 초등학교 <말하기·듣기> 교과서 연구위원으로 국어 발전에 이바지했다.

퇴직 후에도 (사)한국어문교육연구회에서 10여 년간 음성언어를 강의했고 2008년부터 1년간 국악방송 (GBF) 바른말 캠페인을 집필·방송했으며, 2011년에는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전국 7개 대학 9회 순회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도 클럽회보에 '발음 이야기'를 연재하며 올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규홍(전 KBS) 부회장

선후배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송구스럽다. 퇴직한 지 13년 만에 이런 상을 받지 꿈에도 몰랐다."는 김규홍 부회장은 1968년부터 2005년까지 37년간 아나운서와 PD로 봉직했으며, 현역시절과 퇴직 이후 현재까지도 남다른 희생정신과 모범적인 사회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아나운서 퇴직자 모임의 실무를 맡아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은 물론 아나운서연합회와 관계를 돈독하게 해, 선후배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기여했다.

모든 일은 그를 통해야 잘 마무리되니 예서제서 찾는 전화를 받느라 늘 통화중이고 밤늦은 시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일쑤다. '대한노인회 회원 중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니겠는가!

미국과 일본에서 10년간 실버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하고 귀국한 외아들 범수 군이 지난 10월 신사동 가로수길에 수공예 액세서리 전문점 '관테즈QUANTEZ (대표 김범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19, 02-515-8233)'를 개업해 연말을 더욱 분주하게 지내고 있다.

조일수(MBC)

어떤 프로그램이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진행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꽃다발 세례 속에 "염치없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조일수 아나운서는 "여성의 임신, 출산, 승진이 어려웠지만,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았으니 행운이었고, 생업이었으니 축복이었다. 선배님들의 배려와 후배들의 성원 덕분이다. 1987년 여성 최초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

라며 동료가 주는 특별한 상이 고마워 목이 메었다.

조 아나운서는 1977년 11월 입사, 37년 1개월 만에 MBC 최초의 여성 정년퇴직자이자 최장 근무 여성 아나운서란 기록을 갖게 되었다. TV <장학퀴즈>로 시작해 <MBC 뉴스데스크>, <차인태의 출발 새아침>, <건강백세>, 라디오 뉴스와 <FM 영화음악>, <FM 가요산책>, 그리고 <인간시대>, <MBC 스페셜, 그때를 아십니까> 내레이션, 체조·피겨스케이팅·볼링·에어로빅 중계방송 등 어떤 프로그램이든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성 진행자로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1995년부터 OB초록회(회장 임국희)가 후배 여성 방송인에게 시상하는 격려상의 제1회 수상자로 명지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2014한국어나운서대상에서 KBS 김재원 대상 수상

한국어나운서연합회

아나운서클럽상 - 이혜승 SBS 아나운서, 김준호 OBS 아나운서

장기범상 (내부) - 평화방송 아나운서팀, 장기범상 (외부) - 이규향 전 KBS 아나운서

라디오진행상 - 최지은 교통방송, 정희경 CBS 부산 아나운서

TV진행상 - 김일중 SBS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상 - 허일후 MBC 아나운서

지역상 - 조미숙 대구교통방송, 이경수 KBS 광주 아나운서

특별상 - 아나운서클럽 김규홍 부회장, 조일수 MBC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들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시상식 개최

한국어나운서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0회 2014대한민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이 12월 10일 (수)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제2차관,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전동건 방송기자연합회장, 전·현직 아나운서와 가족친지 등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애쓴 아나운서들을 격려하며 뮤지컬 배우 배다혜와 원모어찬스의 축하공연을 즐겼다.

조수빈(KBS), 오승훈(MBC) 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는 신동진(MBC) 회장이 연합회 치과 자문의로 기여한 미플러스치과 이진민 원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15대 집행부 이성배, 김나진, 오승훈 아나운서 공헌상 수여 후 지역상부터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1995년 목포에 입사,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살린 방송으로 기획력을 인정받

아 올해 대구교통방송 방송부장으로 영전한 조미숙(대구febc) 아나운서와 10년째 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을 제작진행하는 아나운서부장 겸 편성문화사업부장 이경수(KBS 광주) 아나운서(KBS 유지철 협회장 대리수상)가 연말 퇴직자인 안희재(KBS) 아나운서로부터 지역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이디어 맨 <좋은 아침>의 김일중(SBS) 아나운서가 임국희(전 MBC) 부회장에서 TV진행상을, 올 한 해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까지 섭렵한 허일후(MBC) 아나운서가 교통방송 성경환(전 MBC) 대표로부터 스포츠캐스터 상을 받았다.

황인용(전 TBC) 회원이 수여한 라디오진행상은 생방송 <4시를 잡아라>의 활력소 최지은(tbs) 아나운서와 <살롱 12시에 만납시다>를 맡아온 중견 정희

경(부산CBS) 아나운서가 차지했다.

아나운서클럽상을 수상한 이혜승(SBS) 아나운서는 김동건 회장으로부트로피를 받고 “중견이 되어 처음 받는 상이라 긴장된다.”라고 말했고, 김준호(OBS) 아나운서는 방송이 끝나고 오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소감을 전해 재미를 보여주었다.

장기범상은 라디오스팟<우리말 바른말>을 제작진행하며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전례용어까지 제시해온 PBC 아나운서팀과 클럽호보에 ‘발음 이야기’를 연재 중인 이규향(전 KBS) 회원이 받았다.

이계진(전 KBS) 부회장과 최만린(전 KBS) 고문으로부터 각각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받고, PBC 아나운서팀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든 ‘바보회’, 이규향 회원은 아나운서연합회에서 상금 전액을 희사했다.

그리고 강영숙(전 MBC) 고문, 전동건 방송기자연합회장, 황우겸(전 KBS) 고

문이 시상자로 나서 여성 아나운서로 최장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조일수(MBC) 아나운서, 파업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 출발한 MBC 아나운서들, 선후배의 연결고리 역할에 힘써온 아나운서클럽 김규홍(전 KBS) 부회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끝으로 문화부장관상인 대상은 ‘6시 내 고향’의 김재원(KBS) 아나운서에게 돌아갔다. 대리 수상 직전에 뛰어들어와 김희범 차관으로부터 상을 받아 더 큰 관심을 모았다.

2부는 허일후, 서인(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신입사원들의 노래와 콩트, 경품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각 방송사 아나운서협회가 마련한 풍성한 선물과 김규홍 부회장의 ‘실버 주얼리(QUANTEZ 작품)’, 박찬숙 부회장의 사진집 등이 제공된 경품 추첨에서 KBS 신입 이각경 아나운서가 박 부회장의 사진작품 ‘말’을 당첨 받으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대상 강재형(MBC) 방송부문 이형걸(KBS) 특별상 이진(MBC)



한국어문기자협회가 주는 한국어문상을 수상한 이진, 강재형, 이형걸 아나운서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경우 서울신문 어문팀장)가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제26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MBC 강재형 아나운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미디어언어연구소를 운영하며 국립심의회 위원, 국립국어원 말다듬기 위원회 위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강 아나운서는 수상 후 “값진 상을 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알찬 말글살이 엮어가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부문에 ‘KBS아나운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 담당자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힘써온 이형걸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차장이 신문 부문 성귀숙 동아일보 어문연구팀 차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고, <우리말 나들이>를 진행하는 MBC 이진 아나운서가 박동섭 변호사와 함께 특별상을 받았다.

이밖에 말글사랑 부문 김한빛나리 한글학회 총무부장, 학술 부문 김문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관, 공로 부문 전혜숙 한국경제 기사심사부 기자가 선정되었다.



눈초 掬初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6



이번 연말에 영광스럽게도 ‘장기범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 기회에 아나운서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KBS 아나운서실에는 역사에 걸맞은 전통문화가 있다. 사람이 자기 이름 외에 쓰는 ‘아호雅號’는 ‘개인 문화’이다. 아나운서실의 청동기 시절, 선배님들은 현암玄庵 이계원, 소천素泉 민재호처럼 호가 있었다. 素泉은 ‘泉’을 장기범 후배에게 물려주며 인천仁泉이라 지어주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영우 고문의 문겸文兼을 비롯해 백하白霞, 동선童仙, 유마루西馬樓, 토현土軒, 학촌鶴村, 용포庸浦, 청연淸然, 남초南草, 목리木里, 관봉觀峰, 우봉祐豊, 효천曉峯,

우선愚叟, 눈초掬初(필자의 호를 파자破字 하면 初처음 마음처럼 생산다 初처음 마음처럼). 호를 이름처럼 부르며 선비 흥내를 내고 있다.

그리고 30년대 문인들의 흥내를 내는 낭만의 음주문화가 있다. 仁泉의 훈시에 따라 ‘술자리에서는 남의 흥을 보지 말며, 술을 권할 때 술병의 상표가 올라와야 하고 왼손으로 따르지 말 것’ 등이었다.

KBS 아나운서실은 한국의 음성언어의 산실이다. 제1기는 자각기(1945~50)로 해방과 더불어 ‘국어사랑이 곧 나라사랑’이라는 선각자적 사명감이 불타던 시기요, 제2기는 계승기(1951~82)로 국어수호에 철저하여 나라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던 시기, 제3기는 발전기(1983~현재)로 아나운서실에 KBS한국어연구회가 탄생, 국어학계의 원로 중진학자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상아탑의 학문과 현장언어가 산학産學협동정신의 기

반을 다지게 되어 방송언어가 신기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가 정해본 편년사編年史이다.

아나운서실의 선배와 후배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장인匠人들의 도제徒弟교육처럼 수십 년을 면면이 이어오면서 형님 같은 선배와 아우 같은 후배의 정이 짙어지고 있다. 1960년에서 80년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정권 시절 아나운서실에는 단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장기범 선생이 작고하신 후 작년까지 26년 동안 강화도 묘소 참배(엔지니어, PD, 기자 포함)를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다.

‘아나테이너’로 아나운서의 정체성이 논란거리였을 때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땀물이 뺀돌은 돌지만 밭들은 움직이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국민의 영원한 국어교사인 言語運師

(필자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아나운서실장실에는 192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본사에 근무했던 503명의 아나운서 이름들을 40호 크기의 화선지에 붓글씨로 쓴 네 폭의 족자가 걸려있다. 전통을 중시하는 NHK 아나운서실에도 이러한 遺物유물은 없다 하니 세계 어느 직장에도 없는 자랑거리라 하겠다.

며칠 전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동네 시장 좌판장수 할머니가 소금을 짜지 않게 뿌린 후 꾸덕꾸덕하게 말린 가자미 두 마리에 민어 한 마리, 그리고 1.6리터짜리 맥주 한 병. 南草가 꽤 먼 거리에서 들고 와 몰래 두고 간 선물이었다. 백화점에서 세련되게 포장되어 보내온 한 상자의 선물보다 더 고마웠다. 어느 직장, 어느 직종의 사람이 이런 행복을 맞출 수 있겠는가.

이 글 또한 한 후배가 선물한 만년필로 써보았다.

아나운서 言語運師

방송가 소식

지역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이 어디서?

역마살을 즐기는 아나운서 - 이영재(KBS 제주)



1996년 KBS 22기 입사
강원권 태백, 98년 강릉
2002년~현재 제주 근무

“중국인들이 제주의 양식산업에 직접 투자해 엄청난 자본력으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풀어버리면, 주요 품목들이 양허제외가 되더라도 한중 FTA에 기술인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 이런저런 방송 무작정 해 왔는데, 이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토론하는 방송을 맡게 됐구나. 일주일 내내 공부할 각오를 해야겠네...’

요즘 프로그램이 많아져 신입사원처럼 일하고 있다. 제주도 동쪽 끝 섬지코지에 촬영을 다녀온 후 한 시간 더빙하고 라디오, TV <제주 7시 뉴스>에 토론 <시사파일> 준비까지, 죽음의 수요일은 특히 그러하다. 좋게 말하면 젊게 살려 노력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아직도 철이 없이 살아 온 내

가 어느 순간에 20년차를 앞두고 있다니! <6시 내 고향>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도 긴장되다가 점점 방송의 재미를 붙이게 되었던 태백. 탄광촌으로 알려졌지만 동화 속 나라처럼 신선하고 신성한 공기와 순박한 사람들.

매주 중계차를 타고 전파가 힘을 잃기 쉬운 산골로 들어가 방송하며 뉴스와 리포터의 역할로 정신없었던, 소중한 인연의 시작점 강릉.

부모님을 핑계로 자원해 왔지만, 이젠 나도 모르게 ‘무사 경 행시냐(왜 그러는데?)’ 라는 제주 말이 부지불식간 튀어나올 정도로 삶의 무대가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관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선택한 커피 향 아련한 미국 시애틀.

아마도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KBS에 입사하면서 그 이점을 가장 톡톡히 누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싶다. 일찌감치 본사로 가 큰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

람들이나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걸 나는 눈치 챌 수 있다.

“그렇게 지역생활이 좋아요?”, “그래도 서울 가야지, 집이 서울이잖아.” 수도 없이 들은 말이지만, 나는 좋다. 강원도, 제주도, 우리나라 몇 명의 사람들이 사람 좋고 정치 좋기로 1, 2등인 이 곳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난 정말 KBS에서 뿔아먹을 것 다 뿔아먹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하하!

아직 준공 1년도 되지 않은 환상적인 제주방송총국 건물이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나는 이런 혜택 받으면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왔나? 자문해 본다. 전문화가 가능한 중앙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대부분 지역 아나운서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하루에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방송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만큼 도민들이 원하는 팔방미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내 고향이 제주가 아

니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매서운 바람을 많이 맞은 듯한 외모 때문인가? 하하! 이유야 어찌 됐건, ‘어느 정도 이곳에 녹아들긴 했구나.’ 싶어 대견한 마음이 들면서도 아직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하지는 못했다는 자책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대가 바뀌어 오히려 도시민의 이주가 점점 더 늘어나는 제주도. 이렇듯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삼다의 섬에서 그 변화를 같이 몰고 갈 수 있는 방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동시에 오늘도 그 지역 출신이건 아니건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방송하고 있는 모든 아나운서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남성적인 산줄기와 힘찬 파도가 눈에 선한 그리운 강원도, 여성적인 부드러운 흐름의 능선과 청옥색 환상적인 바다가 함께 하는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지역들, 그 소중한 땅들에 더욱 경의를 표한다.



아나운서 끼와 재능 알리는 ‘100人100色’ 프로젝트 기자간담회



SNS 오정연의 리듬체조(사진), 이슬기의 라틴댄스, 백승주의 재즈, 김민정의 발레, 윤수영의 탁월한 영어 실력, 오연종의 힙합, 뮤직비디오에 담은 이상협의 방랑기가 소개되었고, 육아휴직 후 최근 복귀한 차다혜의 스포츠 사랑과 고민정의 시 사랑 등도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윤영미 실장은 12월 1일 오후 3시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및 시사회를 열고 “이 영상물이 각기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100人100色’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팍타크로를 소개한 이영호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안희재 아나운서 고별방송 금융기술 기업에서 또 다른 시작



12월 31일 퇴직을 앞두고 11월 20일 이인숙 제1라디오국장, 김병진 라디오부장, 임수민 한국어연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시니어>의 고별 방송을 진행했다.

1978년 KBS 공채 5기로 시작, 시청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방송 진행자로 올해까지 36년 9개월간 활동하고 퇴직하는 안 아나운서는 주식분석 시스템과 fintech(금융기술) 관련 기업 ‘뉴지스탁’의 상임고문으로 일할 예정이다.

이성민 아나운서 신간 출간 차세대 지도자론 <반기문 대망론>



2012년 연말 <대통령의 설득법> (21세기 북스)을 출간했던 이성민 아나운서가 이번엔 차세대 지도자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신간을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 후보 역할과 자질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 <반기문 대망론> (강단)이 그것이다.



평일 저녁 6시 <생방송 오늘 저녁> 신설 등 가을개편으로 아나운서실 더욱 바빠져



11월 17일 가을개편을 맞아 평일 저녁 6시에 김정근, 김초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생방송 오늘 저녁>(사진)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기존의 <꾸러기 식사교실>은 구은영 아나운서, <스포츠 다이어리>는 강다솜 아나운서가 맡았다.

또 <잠 못 드는 이유 김소영입니다>의 김소영 아나운서를 비롯해 <세상을 여는 아침은>은 이재은 아나운서, <라디오 매거진 톡>은 차미연 아나운서, <비포 선 라이프> 1부는 차예린, 2부는 이성배 아나운서가 새롭게 진행한다.

상암 신사옥 이전 후 분위기 쇄신 아나운서국 개인 프로필 촬영

상암 신사옥으로 이사 후 분위기 쇄신과 아나운서국 홍보를 위해 MBC 아나운서 전체가 개인 프로필 사진과 단체사진 등을 촬영했다.



신용철 아나운서 팀장 임명 김태욱 부국장 유영미 부장 승진



1월 28일 인사에서 신용철(사진 왼쪽) 아나운서가 부장급 아나운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신 팀장은 1993년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편집부,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 아나운서실로 복귀했으며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한편 전임 팀장인 김태욱(사진 중앙) 아나운서는 부국장, 유영미 아나운서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2년 만에 남녀 신입 아나운서 선발 김윤상 김선재 아나운서 입사



SBS가 2년 만에 신입 아나운서를 뽑았다. 합격자는 김윤상(27 남), 김선재(23 여) 두 명

이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건국대 영문과 졸업 후 부산민방 ‘KNN’ 리포터로 활동했다. 김선재 아나운서는 2011년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 현재 외교학을 전공중이다.

전직 영어강사 김주우 아나운서 <시나공 토익 스피킹 모의실전> 출간



영어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매달 직접 치른 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 비법을 담아낸 <시나공 토익스피킹 단기완성>을 토대

로, 독자들의 건의사항까지 보완한 <시나공 토익 스피킹 모의실전>(길벗이치북)을 펴냈다.



10월 6일 '보도 경쟁력 강화' 를 골자로 가을개편 시행



10월 6일 보도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가을개편을 시행했다. 신설한 아침뉴스 <OBS 뉴스600>과 <OBS 뉴스645>는 유진영 아나운서, 오후 <OBS 뉴스245>는 조은유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밤 10시 45분부터 경인지역 소식을 집중 보도하는 기존의 <OBS 京仁뉴스라인>은 두 앵커 체제로 개편해 유영선, 최지혜 아나운서(사진)가 진행한다.



평화통일과 가정을 세우는 방송을 지향점으로 가을개편 실시



가을개편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통일 컨퍼런스 등 청취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공유와 토론의 장들을 마련했다. 또한 '가정을 세우는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간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콘텐츠들을 기획해 방송할 계획이다.

창사특집 <바이블 로드>, 탈북청소년 특집 <먼저 온 우리의 미래> 제작

한국선교 130주년이 되는 2014년을 맞아 처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한반도에 전해지는 과정을 다룬 로드다큐 형식의 <바이블 로드>를 제작, 12월 23일 방송한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 제3국을 돌며 탈북 경로를 밀착 취재해 2015년 1월 방송 예정인 <먼저 온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서 탈북청소년들이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통일시대 화합의 다리이자 먼저 온 우리의 미래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을개편에 박재홍 아나운서 표준FM <뉴스쇼> 맡아



11월 10일 가을개편에 따라 CBS 표준FM<뉴스쇼>의 MC로 활약했던 김현정 앵커가 재충전을 위해 하차하고 입사 10년차인 박재홍 아나운서(사진)가 후임을 맡았다. 이에 따라 송정훈 아나운서가 <이명희 송정훈의 싱싱싱>에 투입되어 재미를 더했다.

창사 60주년 기념 자원봉사활동 참여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은 CBS 직원들이 11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벌이며 창사 6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아나운서부는 11월 15일 경기 하남시 영락경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와 배식을 하고 김장 준비를 거들었다.

휴직과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의 시간 가져

휴직한 이지민 아나운서 대신 최정원 부장이 <뮤직플러스>를 진행했고, 신지혜 아나운서는 6개월간의 휴직을 끝내고 9월 복귀했다.

CBS 음악FM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하는 김필원 아나운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tbsFM <4시를 잡아라> 특집 '고맙다 인생아'



보고 싶었던 애청자들을 드디어 만났다. 황진하 아나운서 (사진 오른쪽)가 11월 26일 명보아트홀에서 열린 <4시를 잡아라> 특집 '고맙다 인생아' 첫 공개방송을 맡아 매끄럽고 여유로운 진행 솜씨를 보여주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애청자들을 초대해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돌이켜본 훈훈한 사연과 양희은, 박상민, 소리새 등 가수들의 추억의 노래가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나선홍 아나운서 2015 해맞이 현장 특집생방송 진행 예정

나선홍 아나운서가 <2015 해맞이 현장 특집생방송>을 진행한다.

남산을 찾은 시민과 애청자들을 초대해 팔각정 광장 특설무대에서 새해의 각오를 나누고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엮어질 특집생방송은 2015년 1월 1일 아침 6시부터 tbsFM 95.1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교황 방한 기록 사진집 <일어나 비추어라> 발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사진집이 발간되었다.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일어나 비추어라 : 2014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을 펴냈다. '사진으로 보는 100시간의 사목 여정'이라는 부제의 이 사진집은 역사적인 교황 방한의 주요 장면을 150여 장의 사진과 함께 100여 개의 발언 자료로 담았다.



막내 신의석 아나운서 첫 공개방송 데뷔



신의석 아나운서가 11월 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갂기대회 및 문화축제' 중에 열린 특집 공개방송 사회를 보았다. 3500명이 참가한 이 음악회는 11월 8일 오후 1시, 평화방송 라디오(서울105.3MHz)<함께 가는 길,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방송되었다.

대림 개편에 따라 신설한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투입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인 대림 개편을 맞아 초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올바른 길을 찾아보는 안병철 신부의 <TV성서못자리>는 지승신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또 외국 신자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 교회, 그들이 들려주는 세계교회 이야기, 다른 듯 같은 믿음의 이야기 <토코쇼 코이노니아>는 김빛나 아나운서가 김우중 신부와 공동 진행한다.



아나운서 진행으로 가을철 다양한 행사 마련



'찬불 동요제'를 진행하는 김형기, 이효주 아나운서

가을을 맞아 불교계와 불교방송에서는 시청자, 청취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진행과 사회를 맡았다.

지난 11월 11일,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 나눔 실천본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8시간 특별생방송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었다.

11월 15일에는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제5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사진)가 열렸다.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 고시 내년 시행

1988년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첫 선을 보인 <문장부호> 용법이 26년 만에 보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27일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바뀐 글쓰기 환경을 고려해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이다. 새 <문장부호>는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맞춤법 문장부호 개정안

1. 온점과 반점으로 불렸던 ‘·’와 ‘.’은 마침표, 쉼표로 혼용해서 사용 가능.
2. 말줄임표는(가운뎃점 6개)에서(마침표 6개) ... (가운뎃점 3개) ... (마침표 3개)도 사용 가능.
3. ‘3·1운동’을 3.1운동으로, 상·중·하를 상,중,하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 사용 가능.
4. 원고지에 많이 쓴 낫표(「, 『, 』)나 화살괄호(< , >)와 함께 따옴표(‘, ’)도 사용 가능.
5. 연월일을 숫자만 쓸 경우에는 2014. 10.30.처럼 날짜 뒤에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사용.
6. ‘애를 씹’처럼 명사형 혹은 명사로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붙이지 않아도 됨.
7. 날짜 사이에 붙는 물결표(10월 28일~31일)도 붙임표(10월 28일-31일)를 병행해 사용 가능.



차인연합회 '올해의 차인상' 수상



전우벽(전 KBS)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가 12월 15일 세종홀에서 주최한 송년다담축제에서 제13회 '올해의 차인상'을 수상했다. 전 회원은 1970년 CBS에 입사, 2004년 KBS 정년 퇴직 후 그 해 8월부터 10년째 한국차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서예문화원로총연합회 전시회 개최



맹관영(전 KBS) 대한민국서예문화원로총연합회 회장으로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제1관에서 제9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총재 조수호, 회장 맹관영을 비롯해 여원구, 고강, 정하진, 홍석창 등 회원 작품 150여 점이 출품되었다.

효지도사로 초등학교에서 효문화 강의



이혜옥(전 KBS) 한국효운동연합회의 효지도사로 서 도덕성 회복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고명초, 고양시 화정초, 여주 여강중, 부천 상동중 등지에서 인성교육을 포함한 효문화를 강의했다.

방일영문화재단 2014 하반기 저술기금 수혜



신은경(전 KBS) 방일영문화재단 2014 하반기 저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차의과대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이며 글로벌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신 회원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집필할 예정이다.

차의과대 의료홍보영상학과에서 후진 양성



서재원(전 KBS) 차의과대 의료홍보영상학과에서 방송편성제작론을 강의했다. 서 회원은 1985년 공채 11기로 입사, 1991년 PD로 전직해 편성센터장을 지냈으며 2013년 정년퇴직 후 올 2학기부터 차의과대 교수로 임용되어 교양교육원 원장도 맡고 있다.

MBC 임국희 아나운서 골든 마우스 제막식



왼쪽부터 MBC사우회 백하현 전 부회장, 사우회 김수량 회장, 자신의 골든 마우스를 들고 있는 임국희 아나운서, 안광한 사장, 권재홍 부사장 오른쪽은 격려상 수상 장면

MBC에 임국희 부회장의 '골든 마우스'가 제막되었다. MBC 사우회(회장 김수량) 회원들이 MBC(사장 안광한) 상암 신사옥을 방문한 11월 29일, 오남렬, 정경수, 김관영, 정영환, 양진수, 권혁화 회원 등과 OB 초록회(회장 임국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 마우스 홀에서 20년 이상 MBC에서 방송한 진행자에게 헌정하는 골든 마우스 제막식이 열렸다. 임 부회장은 "MBC 53년 역사 속에 한 점을 찍은 것이 영광이고, MBC가 역사 속에 오래 빛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MBC 초록회, 이정민 아나운서에게 격려상 MBC 초록회는 12월 4일 여의도 열빈에서 연말을 맞아 초대 손님 이기호 전 원주MBC 사장, tbs 성경환 사장 등과 함께 후배 아나운서를 격려,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의 주인공 이정민 아나운서는 2002년 MBC에 입사,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현재 <주말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 중이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장내 방송 진행



왼쪽부터 황량, 김혜민 영어 아나운서, 최정훈 미디어과장, 이세진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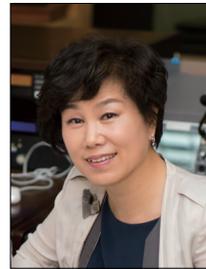
이세진, 황량(전 KBS) 인천아시아게임에 이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아시아게임 육상경기 상황 설명과 시상식 등 장내 방송을 진행했다.

낙산재에서 우리 음악 듣기 사회, 뉴욕 한인극단과 공연



임성민(전 KBS) 5월 25일부터 6월 22일,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창덕궁 낙산재에서 열린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 행사의 사회를 보았다. 이어 미국 뉴욕의 한인극단 MAT가 10월 12일과 13일 퀸즈 씨어터에서 공연한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임흥주 작)에 특별출연했다.

클래식 문화강좌 진행, 새해부터 <당신의 밤과 음악> DJ 복귀



이미선(전 KBS) 1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백석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만난 클래식' 문화강좌를 진행했다. 올 3월 말 퇴직한 최장수 클래식 DJ 이 회원은 최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전임교수로 임용되었고, 새해 1월 1일부터 KBS 1FM <당신의 밤과 음악>의 프리랜서 DJ로 복귀한다.

국악방송 <책이 좋은 밤> 진행



구영희(전 KBS) 10월 20일부터 국악방송 <책이 좋은 밤 구영희입니다>(월~금 오후 9시~11시)를 진행하고 있다. 구 회원은 1987년 공채 14기로 입사, 97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서 EBS 수능특집 프로그램과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등을 진행했다.

세 번째 시집 <내가 사랑하는 세 여인> 출간



김병래(전 KBS) 9월 초, <내가 사랑하는 세 여인>(다산)을 출간했다. 김 회원은 1969년 입사, 부산방송국 아나운서부장을 끝으로 2004년 정년퇴직 후 수필집 <아나운서와 술>, 시집 <떠남의 의미>, <아버지의 노래>를 펴내고 수채화도 그리며 지내고 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며 성경을 아름답고 쉬운 말로 다듬는 작업 중



최창섭(전 MBC) 성경 전체를 녹음해 무료 배포한 것을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성경을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밥존스신학대학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뉴욕에서 신실한 생활하다 11월 30일 소천



박동수(전 KBS) 1959년 입사, 부산과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4년 미국 이민 후 뉴욕에서 거주하며 기독교회 장로로 신실한 생활을 하다 11월 30일 향년 80세로 소천했다.

알림

축하합니다

김환(SBS) 2015년 1월 23일 오후 7시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회사원과 혼인
오연중(KBS) 12월 21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변호사와 혼인
유협, 이해영(전 MBC) 11월 29일 아들 제열 군 혼인
박지혜(BBS) 11월 23일 경영 컨설턴트와 혼인
백원경(CBS) 11월 8일 의사와 혼인
김정빈(전 KBS) 11월 8일 가수인 아들 경호 군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손범규(SBS) 모친상 10월 17일
한선교(전 MBC) 모친상 10월 13일
양성준(전 KBS) 부친상 9월 28일
김상근(전 KBS) 부친상 9월 19일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수 12월 31일 MBC 정년퇴직

안희재 12월 31일 KBS 정년퇴직

고맙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입금 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이성화(전 TBC) 20만 원



김규홍(전 KBS) 30만 원



김정빈(전 KBS) 10만 원



미국 연말 세일기간을 맞아 부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도 바빠져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면에서도 미주 정영호 (전 KBS) 편집위원이 회원들의 동정을 모아왔다.(가나다순)

강미란(전 KBS) 10월 1일 만아들 결혼식이 독일 쾰른에서 열려, 덕분에 다시 쾰른대성당 등 주변 관광을 하고 왔다. 추수감사절은 둘째 아들과 지냈다.

김미영(전 MBC) 한국에서 게임 회사에 다니는 첫째 아들이 11월 중순 예비 며느리와 함께 LA를 다녀갔다. 내년 5월쯤 아들 결혼식 때 고국을 방문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

김미희(전 KBS)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LA 라디오 오서울 생방송 <스튜디오 1650>을 진행한다. 한국식 직장문화를 좋아하며 KBS 미주지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한국어가 많이 늘어 다행이라고. 성탄절은 시카고에서 일하는 남편(산울림 김창훈 씨)과 아들과 딸, 넷이 함께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영우(MBC) 올해 85세로, 건강이 안 좋아져 11월 25일 LA 동부에 있는 랜초 쿠카몽가의 큰딸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김용현(전 MBC) 현재 한민족평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11월 10일 딸이 결혼 9년 만에 아기를 낳아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12월 7일까지 뉴저지에 머물며 뉴욕에서 옛 동창들과 해후의 기쁨도 나누었다.

김정태(전 CBS) 매주 나성 영락교회에 나가 예배 보며 틈나는 대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한인 독거노인들과 양노원에 계신 노인들을 찾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드렸다.

문지현(전 KBS MC) LA 코리아타운에서 '스튜디오 2000'이란 사진관을 운영하며 라디오코리아에서 매주 토요일 두 시간 방송도 한다. 지난 10월에는 고려대 입학 40주년을 맞아 22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 강성희,

김영임, 이영혜, 오미영 아나운서 등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서동숙(전KBS) LA 라디오 서울에서 일요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한다.

송현식(전 KBS) 지난 4월 서울에 와 지내다 10월에 미국에 가 LA와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들 딸네를 방문하고 내년 2월에 돌아올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로 서울에서 지낼 계획이다.

이승상(전 MBC) 12월 7일 작년 연말 둘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첫 손자의 첫 돌 잔치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의 공원에서 열었다. 손자 재물을 보는 재미로 세상고민을 할 틈이 없다고. 손자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일에서 일체 사퇴(?)했다고 한다.

이정원(전 MBC) 지난 여름 모국에 계신 친정어머니 칠순을 맞아 친정 식구 다섯 명과 캐나다 로키산맥을 다녀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도 구경시켜드렸는데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다고 한다. 미국생활 10년째이나 아직 칠면조가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이 회원은 새해에는 남편과 오붓한 여행을 꿈꾸고 있다.



김영우



김미희



김용현



정영호 편집위원

이철규(전 KBS) 추수감사절은 장조가 집에서 30여 명이 모여 즐겁게 보냈다. 벌써 연말모임 초청장이 몇 장 와 있는데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보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즐긴다.

정철웅(전 KBS) 11월 28일 칠순을 뉴저지 아들집에서 30여 명이 모여 미국식 깜짝 파티로 보냈다. 올 봄 퇴직하고 일곱살, 다섯살 손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큰 즐거움인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지난 9월 10일 모친이 향년 95세로 별세하셨다는 것. 삼가 명복을 빈다.

최숙경(전 KBS) 추수감사절에 30여 명의 대가족이 모여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 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환갑! 이제부터는 자식 돌보는 일에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 KBS와 함께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금융인(BBCN은행 전무)으로 끝맺음 하려 하니 감회가 새롭다.

홍우창(전 TBC) 상업용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며 2004년부터 독신으로 지내다가 지난 9월, 남은 인생의 반려자를 맞이했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9일 레돈도 비치와 가까운 토렌스로 이사했고, 얼마 전 귀하게 얻은 손녀딸의 백일잔치를 베풀었다.



강미란

수필

사랑합니다, 아나운서 여러분!

홍우창 (전 TBC)



10여 년간 독신으로 지내다가 지난 9월 결혼 후 토렌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젊은 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수백 대 일의 경쟁을 거쳐 첫발을 디뎠던 꿈 많은 나의 아나운서 시절. 1976년 당시 서소문 TBC 본사에서 3년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 TBC LA지사 및 중앙일보 미주지사에서 약 7년. 도합 10년간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시절은 아직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동양라디오입니다.” 콜사인 하나에도 바짝 긴장하여 입술이 타던 수습 아나운서 시절, 쟁쟁한 선배들 앞에서 자고저와 흐름, 호흡 등 정신없이 지적받다 보면 평소 매끄러웠던 발음도 왜 그렇게 힘들고 목소리까지 잠겨버리는지...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선배들의 “힘들겠는데...”하는 우려 섞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 좋게도 입사 4개월 만에 전담 TV 프로그램, 일요일 아침 아주 이른 시간대의 대담을 맡게 되었는데, 그 때 느꼈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아나운서 생활이 신설된 TV 스포츠뉴스 프로그램 <오늘의 스포츠>를 진행하며 자리가 잡혀갈 무렵, 나는 미국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1979년부터 TBC LA지사서 계속해서 방송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지금이야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 방송을 할 시간으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통

틀어 주 몇 회, 하루 몇 시간씩 미국 방송국의 채널을 임대하여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였다. 주로 본사의 드라마 테이프를 가져다 방송하였는데, 본국에서 갈라 방송을 하지 않던 시절이라 우리 프로그램만 흑백으로 나가 방송운행을 맡은 미국인 엔지니어 보기가 민망하였다.

하지만 한인사회 시청률은 거의 100%. 그때만 해도 비디오파가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어서인지 한국어 TV방송 시간만 되면 본국의 인기 연속 드라마를 보기위해 일찍들 귀가하는 바람에 한인 타운의 식당과 술집이 한산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뉴스를 현지 제작하여 방송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나의 첫 번째 뉴스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소식이 되고 말았다. 이곳 미주 한인들이 뉴스를 듣고 국제전화로 국내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 뉴스는 물론 갈라로 방송되어, 후에 내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선배들에게 농담 삼아 TBC 갈라 방송 1호 아나운서라고 자랑했던 일이 기억난다.

아무튼 긴급뉴스를 계기로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이십여 분씩 몇 년간 TV뉴스를 빠짐없이 진행하였는데, 이 시절이 내 방송 생활의 황금기(?)였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뒤 본국에서는 이미 언론통폐합으로 친정인 TBC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이곳 LA에

서는 몇 해 뒤에야 TBC LA지사를 KBS의 현지법인 자회사인 KTE에 넘겨주고 나는 자의 반 타의반으로 방송 현업에서 떠나게 되었다. 언론통제로 서슬 퍼렇던 시절, 본국에서는 방송이 안 되었으나 망명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한 우리 방송이 눈엣가시였을 터이다.

별써 삼십 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야기들인데 아직도 내겐 한 무릎을 파지 못한 적지 않은 회한과 함께 나의 첫 직업 아나운서에 대한 미련과 열정, 사랑과 긍지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위성방송이나 현지 방송 등에서 틈틈이 방송생활을 계속해왔지만, 젊음과 함께 내게 찾아왔던 TBC 아나운서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졌던 잊지 못할 시간들이다.

이렇듯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게 하여준 한국어아나운서클럽에 감사드리며 감히 만나뵙지도 못하였던 원로 아나운서 대신 배님들을 비롯해서 TBC 아나운서실에서 함께 하며 나를 아껴주었던 선배님들,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아나운서들에게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새해인사를 드린다.

“사랑합니다, 아나운서 여러분! 즐거운 연말과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1976년 TBC 입사
1979년 TBC LA지사 아나운서
1983년~1985년 KTE 사퇴 및 미주 중앙일보사 복귀
2006년 CRN-TV(캘리포니아 부동산전문TV) 사장
부동산 뉴스 제작 및 진행
미주 경희대 동문회장, 미주방송인협회 회장
L.A. Olympic Lions Club 회장 역임



Zoom-in 박지윤(전 KBS)

‘나를 고집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했어요’

결혼 5주년을 맞은 박지윤(전 KBS), 최동석(KBS) 아나운서 부부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특별한 선물 - 사랑, 하나 더’ 캠페인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훈훈한 소식을 듣고 연말을 맞아 ‘육망 아줌마’라 불리며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박지윤 회원을 만나 보았다.

/ 황인우(전 KBS) 편집장



엄마의 마음으로 장애 어린이를 위해 초록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1. 어떻게 선행에 동참하게 되었나?

먼저,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이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고, 두 아이도 얻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행복감에 젖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누고 싶어졌어요. 꼭 물질이 아니라 나누고픈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었으면 했죠.

2. 어머니의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을 것 같다.

네, 어머니의 마음...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다 내 자식 같이 느껴지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아픈 아이들을 보면 저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엄마들이라면 다 같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안면기형인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였어요. 외모가 살아가는 기준은 아니지만 세상이 만든 기준 때문에 몸이 아픈 아이들이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1차 수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첫 발걸음이지만 기회가 생기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흘려보내고 싶은 바람입니다.

3. 자신을 직접 소개해 달라.

2004년에 입사했고 일복이 많아서인지 신입 때부터 일손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뉴스 코너에서부터 사회교육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쌓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는 <스타 골든벨>이나 <스포츠뉴스>에서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짧고 굵게 직장생활을 하고 2008년 봄에 퇴사했고 2009년에 결혼, 이듬해에 첫 딸을 낳았어요. 저의 본격적인 프리랜서 활동은 아이를 낳고 활발해졌으니 아이가 복덩이처럼 느껴지네요. 올해 초에 둘째 아들을 낳았고 살림, 육아, 일 세 마리 토끼를 잡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4. 요즘 활약이 대단한 것 같다.

아무래도 방송환경이 변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주 시청층으

로 부각되다보니 저도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JTBC<썰전>, Ystar<식신로드>, KBS<엄마의 탄생>, SBS<쿡킹코리아>이고, 조만간 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도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5. 타당한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각오는?

그 때는 결혼이 이유였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는 못 하셨어요. 맹목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돌이켜보면 저도 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앞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고 ‘나’를 고집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했어요.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쓰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감히 프리랜서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은 저의 프로그램 개수에 놀라시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뒤에는 내용으로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6. 기상부터 취침까지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꾸려지나?

불규칙하기 그지없지만, 8시쯤 일어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도 바로 일터로 향해요. 한주 분량의 녹화는 저녁때쯤 마치지만 2주치를 찍어야 할 때는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많죠. 하루를 두고 보면 이런 식이지만 주 단위로 보면 월화목금을 일하거나 월수토를 일하거나 한주한주 달라져서 스케줄 포를 잘 들여다봐야 실수하지 않아요.

JTBC <썰전>, Ystar <식신로드>, SBS <쿡킹코리아> 등에서 맹활약 중인 ‘육망 아줌마’ 박지윤 아나운서

월화목금, 월수토로
꽉찬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아이 숙제, 준비물도 챙기는 억척 주부

7.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생각을 분리하는 것도요. 왜냐하면 엄마 박지윤이 늘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고 방송인 박지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겹친다거나 뭔가를 놓친다거나 하면 그야말로 비상이죠. 두 가지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다 중요하니까요.

늦게 들어가도 아이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려면 일찍 일어나야하고, 내가 모니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아이들을 재우고라도 해야 하니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지만 프로는 그 피로감을 화면에 전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심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주문을 걸며 맛있는 거라도 챙겨먹으며 기분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8. 일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본보기이다. 남편 자랑도...

방송하는 사람치고 결혼도 아이도 빨랐다고들 하세요. 요즘은 ‘성공 먼저, 결혼은 나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빨리 하는 게 좋다가보다는 ‘빨리 하면 손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일장일단은 있으니까요.

저는 결혼과 아이가 저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책임감을 줬고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막 결혼했을 때는 아가씨도, 아줌마도 아닌 신분에 캐스팅 제의가 줄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쓰임새가 더 많은 진행자가 됐고요.

아침 뉴스 진행자라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남편 - KBS 2TV <뉴스타임> 최동석 아나운서가 오후시간에 육아를 전담해주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라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9.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 장기적 계획은?

제1의 관심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 맞추기이고요, 방송이라는 매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하고 좋은 피드백 받고,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선배들이 늘 그러셨어요, ‘방송쟁이’는 마이크 잡을 때 제일 행복한 거라고...복에 겨운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즐겨야죠!



일행과 함께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오른쪽 세 번째가 필자)

하얼빈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사적지 기념관을 다녀와서

황우겸(전 KBS) 고문

지난 9월 20일, 내가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단체인 한국JC특우회 회장단과 함께 중국 하얼빈 역사驛舍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시는 애국자이자 오늘을 미리 내다보고 동양평화를

을 주창한 위대한 사상이 안중근 의사를 뒤늦게나마 현지에 가서 추모 참배하고 온 것이다.

1909년 10월 26일의 일이었으니 올해가 105주년이다.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일본제국의 총리이자 초대 조선통감이었던 이등박문을 처단했던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다.

특히 안 의사 어머니가 의연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형무소에 두 동생을 보내어 ‘대의를 위하여 비겁하지 말고 당당히 순국하라’고 전한 것에 더욱 감격하였다. 대한 어머니의 표상다운 가르침이 아닌가!

국민의 화합으로 자유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것과 자유를 누리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는 결의를 되새긴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